

소설 〈황진이〉 연구*

- 이태준, 홍석중, 전경린의 『황진이』를 대상으로 -

명 형 대**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교유(交遊) 모티프 |
| 2. 위반으로서의 출생 모티프 | 5. 죽음과 사후 모티프 |
| 3. 기생되기 모티프 | 6. 마무리 |

국문초록

과편화된 ‘황진이’ 설화 모티프가 근대 이후 하나의 유기적 서사체로서 현대소설사에 새로이 등장한다. 일대기로서 장편화한 이태준의 <황진이>가 1930년대에 우리 문학사에 복고하는 또 다른 징후는 ‘조선적인 것’으로서의 그것이 가진 식민지 문화전략과 결합된 이중성 때문이기도 하다. 전경린, 홍석중 역시 소비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담론과 남북의 정치적 기류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성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원인은 현실 비판의 초점을 무엇으로 보는가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태준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원인을 일차적으로 상사병으로 인한 총각의 죽음에 두고 있다. 이것은 신분문제 못지않게 민속신앙과 정절(貞節)을 윤리적 가치로 접목한 조선조의 유교문화를 중요한 문제로 보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 있음을 뜻한다. 홍석중이나 정경린의 <황진이>는 다 같이 출생 성분으로 말미암아 천기(賤妓)로 전락하는 진이를 강조하여 그리고 있다. 홍석중은 진이의 비밀한 출생을 시학적 구조로 강조하면서 흥미를 더했으며, 정경린은 진이의 일대기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부가함으로써 기생됨의 원인을 신분 문제에 비중을 더 두었다.

소설 <황진이>의 중심을 이루는 모티프는 기생으로서의 일탈적 행위이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들과의 교유가 절대적 자유의 구가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현실비판에 귀결됨을 보여준다. 진이는 사대부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그들의 행위와 그 심층에 있는 반상의 차별과 그것에 따른 성의 지배와 권력의 지배를 비판한다. 특히 홍석중의 진이는 양반 사대부들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하고, 정경린의 경우 진이가 누리는 사랑과 성적 자유분방함은 역설적으로 성 권력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고자 양반들의 성의 지배를 비판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태준의 경우는 양반에 대한 비판에서도 추상적인 낭만적 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제어 : 이태준, 정경린, 홍석중, 황진이, 기생, 교유 모티프, 후일담

1. 들머리

‘황진이’를 모티프로 하여¹⁾ 현대문학 속에 새로이 생성된 세 편의 소설 <황진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황진이는 근대 소설(novel)의 장을 기다려왔다. 마음대로 유행할 수 있는 근대의 시공간이²⁾ 황진이를 다시

1) 설화는 장시광이 집성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동준의 설화연구에 따라 이를 정리하였다.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제3집』, 1997.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어문학』, 제60집, 1997. 각주 70의 표 참고.

①『星翁識小錄』(1611년), ②『於于野談』(1621년), ③『松都奇異』(1631년), ④『水村漫錄』(1724년 전후), ⑤『順庵文集』(1791년 전후), ⑥『中京誌』(1824년), ⑦『錦溪筆談』(1873년), ⑧『松陽耆舊傳』(1894년).

2) 우미영에 의하면 차상찬은 1929년 8월호 『별건곤』에 “기이(奇異)”로서의 황진이를, 이은상은 1933년 7월 『신가정』에 여류 예술가 ‘황진의 일생과 그의 예술’을

살아나게 한 것이다. 16세기 실존 인물 ‘황진이’가 설화, 야담으로서만 기록되고, 소설로서는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자리하게 되는 것은 황진이 설화의 그 근저에 근대성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근대 이후 시대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소설 <황진이>에 반영된다.

1930년대, 2000년대의 <황진이>가 서로 다른 황진이로 탄생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은 시공간의 이데올로기의 차이, 작가들의 황진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상상력 그리고 역사의식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그들이 놓인 현실 공간에서 과거의 황진이를 어떻게 부러 쓰고 담론화하는가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른 황진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황진이 소설의 탄생 : <황진이>가 식민지 지배의 압력에 대한 가능한 상상력으로서의 장편화와 가족사, 역사소설로의 30년대 문단의 장에 등장한 것과, 동시에 “비애와 애상이라고 하는 여성적” 식민지 조선 문화의 복고로서 소설화되는, 이 이중적 복합적인 모순의 시점에 터를 잡았다. 또한 근대 소설에서 황진이의 시문학 자료들과 설화의 서사 편린들이 가지는 이질성을 모두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내재적 잡식성이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³⁾

30년대 이전의 ‘황진이’들은 출생 모티프나 기생으로서의 교유 모티프가 논리나 합목적성이 결여된 채로, 과편화된 분절들로 존재하여 떠돌고 있었다. 근대소설의 ‘표현의 진실성’⁴⁾ 곧 그 사실성이 비로소 한 사람의

썼다. 소설로서는 박종화가 처음으로 1935년 12월 『새벽』에 단편소설 ‘三絶賦’를 쓰고 “소설적 대상으로 이태준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8집, 2005.9. 173.

3) <금오신화>를 비롯한 고소설의 시가와 서사의 접목이 근대 이후에 소설 장르의 혼합, 잡식성으로 특징으로 규정된다.

4) 이태준, 「조선의 소설들」, 『무서록』, 깊은 샘. 1994. 66-67쪽에서 고소설의 반대급부로 근대소설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소설 <황진이>는 유기성을 가지는 일대기로서 그 인과나 논리적 체계가 인물 소설 <황진이>를 가능하게 한다.

독립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황진이를 축조 재생산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태준은 <황진이> 후기에 적고 있는 바처럼 황진이의 소설화에 매우 의욕적이었다. 이태준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기생은 192,30년대의 기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문에 정통하고 전통적 정서를 가진 ‘정한으로서’의 ‘복고적인 기생’이었다.⁵⁾ 그러나 이태준에게서 황진이의 소설화가 가지는 딜레마는 식민지 조선 문화의 풍경을 기생 문화로 획책하는 식민 지배 전략으로 일깨워진 식민지 문화정책의 연장선에 놓인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일본에서 서구 열강의 호기어린 시선이 게이샤 문화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⁶⁾ 이병기는 『황진이』 서문에서 비록 존경할 만한 위인은 “도리어 역경이 그를 더 굳세게 큼죽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지배 책략에 들어 얽히게 된다는 모순이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비애와 애잔함의 여성적 분위기를 조선의 본질인 양 오도함으로써 ‘동양주의’⁷⁾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합적인 조선적, 민

5) 이미선은 「1930년대 후반 이태준 소설의 변화와 그 의미」에서 이태준의 단상들에서 드러나는 상고취향이나 감상성을 그의 소설과의 관계를 단순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황진이>의 경우 기생 황진이에 대한 이태준의 태도에는 자율적 태도와 상고적 순수성이나 감상성이 상호 모순되어 있다. 상허학회,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253. 이태준, 「기생과 시문」, 『무서록』(박문서관, 1941), 깊은샘, 1994. 81쪽. 김치수의 「이태준 평전」(『이태준』, 지학사, 1990, 360, 361쪽)에 의하면, 백철은 이태준의 소설을 “회고적 감격 스타일”, “조선적 애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정혜영은 기생 잡지 『長恨』에 기록된 “정중하고 고상한 옛날 기생”과 그들이 갖춘 조선의 고유한 “조선적 정서”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 정혜영, 『환영의 근대문학』, 소명출판사, 2006. 126쪽.

6) 박종성, 『백정과 기생』, 서울대 출판부, 2004. 주석 35, 362쪽. 공임선, 「황진이, 거울에 비친 조선 그리고 조선적인 것」,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32쪽.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참고. 식민지 지식인들을 동원한 야나기 무네요시 등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의 문화, 조선 민속을 ‘비애’와 ‘애상’으로 호도한다.

족적인 것이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라는 낭만적 미학을 가능한 한 것이다. 기생의 낭만적 사랑과 순수성에 대한 향수는 자신의 의표와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식민지 지배의 제국주의 노선에 얹히게 되는 모순을 범한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이태준의 <황진이>보다 약 7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가진다. 21세기 남한의 후기 자본주의와 정치적 권력은 ‘황진이’를 문화 산업으로 흥행케 하여 대중 앞에 내놓고 있다. 밀레니엄 이후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자본의 정치·문화와의 유착은 문화를 자본으로 이벤트화시키고 역사를 대중적 현실로 채색하여 볼거리로 만들었다. 정치가는 매장된 전국의 문화인들을 발굴 소생시키고 문화가 우리의 살길이라 했다. 탈근대적 문화, 세속화된 자본은 나날이 성가를 올리는 에로티즘을 문화의 속살로 하여 대중을 끌어들었다. 여성의 성적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의 보편적 인식과 더불어 이성의 억압을 깨고 나오는 에로스는 새로운 문화의 심층에 자리 잡는다. 구전되어오던 설화에서, 사랑의 낭만적 환상에서, 이데올로기의 장벽에서, 황진이는 소비적 자본과 에로티즘의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것이다. 황진이는 그것이 채 다 쓰이기도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로 제작이 되는 등의 신드롬을 일으킨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황진이는 다시 변화된 영혼과 육신으로 태어난다. 특히 성담론의 폭발적 증가 현상은 에로스의 기생 황진이 탄생

7) 공임순, 「거울에 비친 조선 그리고 조선적인 것 1」, 『식민지의 적자들』, 2005. 푸른역사, 44쪽.

김경연,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의 시도들」,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64쪽.

이명희, 「<황진이>·<왕자호동>의 역사소설적 의미」, 『이태준 문학연구』, 1994. 390쪽.

이태준을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는 논의(이명희)가 있는 반면에 공임순 김경연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의 문화를 “비에와 애상이라고 하는 여성적인 것으로 구축”, 새롭게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선인의 본연적 속성인양 윤색하고 각인시켰다. 황진이의 역사적 복권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을 촉진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의 조짐은 문학에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북한의 문학이 최근 까지 지향해오던 “역사의 이야기화를 통한 허구의 사실화”에서 벗어나서 허구적인 개연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니는 이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문학이 추구해 온 집단 공동체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홍석중의 황진이는 개인 진이의 사랑과 행복 추구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황진이가 기존의 이념의 경직성을 벗어나서 개인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변혁이 아닐 수 없다. 이태준과 전경린의 <황진이>와는 다른 공간에서 생산된 홍석중의 <황진이>는 남북이 가지는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공감대는 그 거리가 좁혀져 있다. 작가는 설화에 없는 농이를 주요 인물로 설정하였으며, 하층계급으로서의 민중의 생활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진이를 천민의 신분으로 끌어내리고⁸⁾ 진이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응시케 한다. <늦새바람>에서 이미 “섹스묘사의 첫출발을 알린” 작가는 <황진이>에서 또 다시 금기된 성에 대한 갈증을 노출케 하는, 이들의 잠재적 욕망을 드러낸다.⁹⁾

근대 서사 양식이 세계에 대한 저항이듯이 진이가 맞서게 되는 부조리한 세계의 모습은 사회주의 북한의 이념 체제와 맞닿아 있다. 무산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는 기생 진이로 하여금 첫 대면을 종실인 벽계수의 위선과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 풍자로 시작하게 한다. 하층민으로서의 기생 진이가 바라본 양반 사대부의 위선과 권력지향의 욕망은 북한문학에서 당위적인 배척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유심론적 종교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조선 건국 이후의 억불 정책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황진이를 보는 방법 : 시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생 황진이는 허구적 실체로서 새로이 생성된다. 황진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먼저 담

8)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124쪽.

9) 최진이, 「북한문학 작품과 작품에 대한 이해」, 『민족문화론총』 29집, 2004. 62쪽.

론의 지배적 논리구조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표상화된 <황진이> 담론을 선조(線條)상에 배열된 모티프들의 잠재적 총체성으로 보고 기생 서사의 지배적 모티프를 첫째, 황진이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점과 둘째, 남성들과의 교유라는 두 개의 상위 결속모티프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생으로서의 진이의 삶, 곧 전기적 생애담은 출생 모티프, 기생입문 모티프, 교유(交遊) 모티프, 죽음·사후 모티프의 네 가지 상위 지배소의 체계로 통합적이면서 동시에 이를 4개의 의미소적 범주로 결집하는 계열체로 정리할 수 있다.¹⁰⁾ 소설 <황진이>의 계열체와 통합체는 모티프의 은유와 환유의 관계에서 단위 모티프들을 체계화한 것이다.¹¹⁾ 세 편의 <황진이> 연구란 설화 모티프들이 위에서 말하는 삶의 모습들을 소설의 체계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선택과 배제, 변형 수용이 일어나며 그것이 텍스트 내적 맥락에서,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새로이 생성된 모티프와, 더불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보는 일이다.¹²⁾

구전과 문헌의 설화를 근원으로 한 1936년 이전의 적층된 ‘황진이’ 모티프는 구전하는 황진이와 더불어 1936년 이후 계속 출간된 <황진이> 들에서 수용과 저항, 또는 그 근원이 된다. 근대 식민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이태준의 ‘황진이’(1936)와 북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온 홍석중의 ‘황진이’(2004), 소비적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전경린의 ‘황진이’(2002) 3편¹³⁾을 일차적 연구의 대상으로 살펴

10) 이동준의 연구가 이와 같은 4개의 모티프 군으로 연구되어 있음을 보고 이를 준용한다. 담론의 다른 모티프는 4개의 통합적 체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외연과 내포의 추상화의 과정을 보면 귀속, 또는 연속의 관계를 4개의 모티프 군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인호의 <황진이>는 전기의 일생담 체계가 아닌 특정 계열의 모티프군에 집약되는 서정적 소설이 된다.

11)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08, 90쪽. 사이드는 이 책에서 니체를 말을 들어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진실은 ‘은유와 환유’라는 움직이는 무리”라 서술하고 있다.

12) 설화들 간의 인식 차이는 우미영의 같은 글 참고.

13) 이태준, 『황진이』, 서음출판사, 1988. 홍석중, 『황진이』, 문학예술출판사, 2002.

보고자 한다.

2. 위반으로서의 출생 모티프

설화의 출생담 모티프는 일대기 형식을 지향하는 인물 소설 양식에서 먼저 모티프의 배열 순서나 지속이 구조시학적인 점에서 다음으로 그것이 생성하는 존재론적 의미가 문제시 된다. 부모의 탈선으로 인한 위반으로서의 출생은 따라서 은폐되거나 비밀에 싸이게 되며 이 은폐된 출생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진이의 미래의 삶은 서사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다.

유가적 질서의 가부장제 아래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서얼(庶孽)이라는 출생은 진이로 하여금 가족 구조에서 자신의 위상과 자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안겨준다. 그러나 진이가 비록 서녀로 출생하지만, 소설의 주체적인 인물로서 비범하고 변화 가능한 인물 진이를 낳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이태준 <황진이>에서 출생담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이에게 출생 신분이 문제되는 것은 혼사 모티프와 이웃 서생의 상사병 모티프가 교차 서술되는 가운데 야기되는 혼사의 파탄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모두(冒頭)에서부터 진이나 그 어미 현금은 이미 그들이 첩실 신분이자 진이가 서녀(庶女)임을 잠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이가 서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거나 충격적 사실이 아니다. 진이에게 서녀라는 신분은 이미 주어진 삶의 조건이며 따라서 기생이 되는 삶의 전기(轉機)도 이웃 총각의 상사(相思)에 의한 죽음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본 논문에서 작품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인용문의 끝에 또는 논문의 해당 부분에 작품의 쪽수를 적어 표시한다.

된다. 진이의 출중한 재예(才藝)는 오만할 정도의 타고난 미모와 더불어 가정교육에 의한 합리성에서 온다. 이는 설화의 인물의 신비적 요소가 소설에서 배제되는 한 현상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이태준이 상사병으로 인한 죽음 때문에 기생이 되는 풍속의 문제를 중시한 것보다 조선조의 양반 사대부들의 성과 권력의 사회사적 현실 비판에 기생되는 소이를 더 두었기 때문이다. 홍석중의 출생담은 그것을 소설 미학으로 끌어 올려 흥미를 유발케 하였으며 진이의 자의식을 강조한 서사의 시학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홍석중의 경우, 출생 모티프는 소설의 모두에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혼사의 파약과 기생이 되게 하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비밀의 서술 기법은 시학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출생의 비밀은 나중에 일어나는 혼사 파약의 계기가 됨으로써, 출생의 의혹은 증폭되고, 비밀의 탄로는 황진사의 고명딸 진이를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추락케 하여 충격적 효과를 내고 있다. 황진사와 부인 윤씨의 교전비 현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진이는 그동안 출생이 비밀에 붙여져 왔고 사실을 알 수 없는 진이는 윤씨 부인을 생모로 알면서 양반으로 살아온 것이다.

소설에서 창조된 늬이는 출생의 밑고는 진이를 천민으로서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하고 마침내는 진이가 어미 현금을 쫓아 기생이 되게 하는 동기를 만든다. 출신 성분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적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홍석중에게는 출생의 성분이 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연스런 서사의 반영일 수 있을 것이다.

전경린의 <황진이>에서 어머니 진현학금의 이야기는 형식상 1장(一章)의 1절로써 독립성을 가지고 기술되면서도 ‘-니다 했다’, ‘-니다고도 했다’, ‘-르것이라 했다’, ‘-르더라 전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는 서술어를 빈번하게 씌우면서 소문과 후일담의 성격을 드러낸다. 곧 현학금의 이야기는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진이의 출생담에 딸린 이야기 성격을

가진다.

월애 들기를 꺼려한 현학금은 스스로 맹인이 되었다가 그것으로 기적에서 빠지게 된다. 후에 벼슬길에 오른 젊은 한량과 사랑을 맺게 되나, 그 사이에 난 진이를 황진사 집으로 떠나보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진이가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미의 미천한 신분으로 기생이 되거나 종이 것을 면하는 길은 황진사의 부인 신씨의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이가 세 차례나 자신의 출생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은 신분의 추락이 주는 내적 충격의 표출이기도 하다. 진이가 처음으로 자신이 서출임을 짐작하는 것은 몸종에게 들은 소문이나 종내에는 국법에 따라 아버지 황진사가 양반과의 혼인을 금함으로써 그것은 사실화된다. 진이를 내치고자하는 큰고모는 진이가 왜 황진사집에 살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폭로한다. 그리고 진이는 어머니 현금의 족적을 뒤쫓아 가면서 어머니와 동기였던 청루의 옥섬이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의 출생의 의문을 확인하게 된다.

진이의 남다른 출중함은 어머니 현금의 ‘사람 같지 않은’ 신이(神異)에서 연원한다. 곧 진이의 기예나 진이에게 나는 연향이 진이를 명기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옥섬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의 거문고와 더불어 어머니 현금의 존재는 진이의 생애에 하나의 짙은 그림자로 남는다.

전경린의 ‘향진이’가 기생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상사 들린 서생의 죽음보다 자신의 출생 신분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출생담 모티프는 그 비중이 커지고 진이의 양반을 향한 비판은 양반들이 그들의 권력을 위하여 만든 ‘경국대전’에 가 닿는다. 다시 말해 양반들의 삶의 이면에 성을 권력화하는 남성중심이자 여성을 억압하는 ‘경국대전’의 비판에 이른다.

3. 기생되기 모티프

양반으로서의 황진이의 모습과 기생이 된 황진이의 모습이 일으키는 모순된 존재가 황진이의 실체이다. 기생되기는 통합체로서의 황진이가 기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출생 신분과 사회제도, 혼사장애, 진이를 연모하는 상사의 죽음 모티프들의 상호관계로 부각된다.

이태준은 진이는 자신이 상민(常民)인 어머니 현금과 양반 황진사와의 사이에서 난 서출인 것을 알고 또 자신의 삶의 공간에 아버지로서의 황진사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열여덟 혼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서녀로서의 비애를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이에게는 어머니와의 문제나 가정생활을 통한 품성의 문제 그리고 파행적인 가족관계 등이 기생이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대의 현실 규범은 반상의 차별이 사랑을 불가능케 하고, 혼인을 파하게 하는 원인이 되에도 불구하고 진이나 그 어머니는 혼인의 파약이 있기 전에는 진이가 서녀라는 신분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양반댁 자제와의 혼사를 기대하면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 한 것이다.

그러나 양반의 자식이 아니면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기별에 진이는 비로소 “푸른 비참”을 맞본다. “푸른 비참”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수사로서 사랑이며 혼사에 대한 낭만적 인식을 나타낸다. 사실에 대한 이러한 감상적 인식은 혼인을 물리게 한 당자에 대한 앙심을 갖게 하며(248), 양반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의식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감으로까지 발전한다.¹⁴⁾ 진이는 매과를 통해 들어온 소년당상의 혼처까지도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후처나 첩실의 자리도 양반에 대한 적대감으로 내치고 만다. 스스로의 미모와 재주의 출중함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상처와 “열여덟 해 동안 일직이 이런 모욕감

14) “꽃이란 잠간이로구나!” 이날 저녁 진이는 안방으로 건너가 어머니더러, “나 중이 되겠어요” 하였다.(230쪽)

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굴욕감으로 진이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빠가 저리도록 분”해한다.

진이를 처음 본 서당 소년이 총각이 되어 낭만적인 사랑에의 기대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사병 모티프는 기생되기 모티프의 한 계열이 된다. 상사 모티프의 근원은 「송양기구전」에 처음으로 전하고 있지만, 구전되는 황진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된다. 대중의 잠재적 욕망의 표상으로 구현된 상사병 모티프는 진이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이며, 정절이며, 에로스를 반영하는 사회적 현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상사병으로 죽게 된 총각은 제2장 소년 이야기에서부터 제20장에서 상여에 진이의 적삼을 엮어서 보내기까지, 제23장 진이가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총각 서생이 몰래 가진 당혜의 나머지 한 짝과 ‘적삼’을 상여에 실어 보냄으로써 원귀가 된 상사귀(相思鬼)에게 자신의 상징적 정조를 받친 진이는 마침내는 기생이 된다.¹⁵⁾ 근대 소설의 합리성 속에서 취한 신비는 흥분과 충격적 감정 상태에서 일탈의 기생의 삶을 택하게 한다. 진이의 자긍심은 양반에 대한 반감을 낳고, 격앙한 감정은 양반들의 행태를 분(奮)해하여 바르르 입술을 떨며 “기생이 되겠다는 결심을 낳게 한다.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출생과 운명론적 상사(相思)의 죽음은 진이를 조선 사회의 가족 윤리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상사병으로 사랑에 향하여 죽음을 택한 겸손한 사내에 대한 진이의 낭만적 동경은 그 깊이를 더한다. 죽은 서생과의 혼인이라는 신비는 영혼의 맺음이라는 샤머니즘 의식으로 반영된다.

흥석중의 진이가 기생이 되는 것은 몇 가지 사건들의 상호관계에 의

15) 진이는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 “날더러 온전한 양반이 아니라고! 인전 날더러 또 온전한 처녀도 아니랄테지! 흥…… 구구한 도덕이나 그따위 고열한 제도에 묶여져 살 나도 아니다.” 하로 아침은 약그릇을 갖다 놓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다. 진이는 양치부터 하고 얼른 눕어지지 않는 입술을 바르르 떨다가, “나 기…기생이 되겠어요.”하였다.(244)

한다. 진이의 혼사가 진행되는 중에 은폐되었던 출생은 그 비밀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윤승지댁 도령과의 혼약이 깨어진다. 와중에 진이를 연모하여 죽은 서당 총각의 상여에다 진이는 자신의 슬란 치마를 넣어 떠나보낸다. 혼사와 출생이 뒤얽힌 구조는 비천한 서얼 출신의 신분 문제를 강화, 상승시킨다. 막연하게 알아왔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 파혼을 당하고 진이는 귀법사로 찾아든다. 세상과 차단된 귀법사에서 진이는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응시한다. 18년 동안을 양반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안개 속을 헤매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는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타인의 자리에서 본 자신의 눈에 “분명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진이는 뒤흔들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리한다. 아버지의 유물인 족자를 불태우는 일은 한 때 우려로 보았던 욕된 아버지를 지우는 일이며, 핏줄을 이어 받은 양반으로서의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어서 어머니 현금을 찾는 일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며 곧 자신의 정립을 위한 뿌리를 찾는 일이 된다.

자남산 산자락에서 어머니 묘소를 찾는 일은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다. “진이의 어미 현금은 청교방 색주가의 삼패, 이를테면 못사내들에게 몸을 파는 색주가의 녀인들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논다니였다.” 진이는 양반집 규수로서의 자신의 꿈과 환상을 키워왔던 혼처 윤승지 도령에 대하여 정리한다. 6개의 문장으로 처리된 짧은 단락(제1편 24장)은 고백적 서한의 정중하고 단호한 자기 결단의 표현으로 인연이 닿을 듯했던 낯모르는 도령에 대한 작별인사이기도 하다.

진이는 시중을 들던 할멈, 하녀 이금이까지 정리를 하고 놈이를 불러 ‘마지막 허물벗기’의 의식을 치른다. 진이는 놈이에게 몸을 바치고 어머니의 전철을 밟아 청루로 들어간다. 신분을 바꾸어 기생이 되는 마지막 놈이와의 의식이 조종(弔鐘)의 소리와 함께 비장하게 치러진다.¹⁶⁾

16) “...멀리서 들려오는 봉은사의 종소리는 옛 진이의 죽은 넋을 바래우는 애절한

여기에 더하여 진이를 상사(相思)한 아전집 총각 또복이의 죽음 또한 진이로 하여금 삶의 길을 바꾸게 하는 부수적인 원인이 된다. 진이는 대문에서 ‘그네뛰기’하는 또복이의 상여에 “붉은 슬란치마”를 덮어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행위는 사머니즘 신앙이 관습화된 사람들에게 혼백과의 사랑을 약속하는 일이 된다. 진이는 이제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목석 같은 여인이 되고자 원한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전의 진이의 죽음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진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정리하고 앞길을 정한다. 그것은 준비된 과정처럼 진행된다. 진이가 단지 반상의 신분만을 문제 삼았다면, 높이와의 새로운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이가 기생이 되는 것은 어머니 현금을 따르는 길이며, 세상의 반상의 차별에 대하여 온 몸을 내던지는 항거이며, 궁극적으로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로부터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전경린 <황진이>의 기생되기는 문중(門中)과 아버지 황진사가 내리는 양반 자제와의 금혼 명령에 기인한다. 이는 사실상 진이가 몸담고 있던 양반, 곧 아버지 세계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한다. 『경국대전』으로 상징화되는 아버지의 세계는 법과 제도로서 군림하면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피지배계층을 소유 착취한다. 어머니 진현학금이 걸어온 길을 세습하지 않기 위해 세운 계책에도 불구하고 진이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진이가 기생이 되는 다른 하나, 상사병 모티프는 구조상 간헐적으로 언급 서술된다. 상사병으로 죽은 선비의 상여에 진이가 상여에 속곳을 덮는 해원(解冤) 행위에 비로소 상여는 이승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사의 죽음은 진이를 ‘선택의 문제’에 직면케 한다. 한 젊은이의 죽음은 진이로 하여금 “남을 남이게 하고 진을 진이게 했던

초혼의 메아리마냥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234쪽) 이 일로 출생의 비밀을 알려 같은 신분으로 함께 하려 하였던 높이의 욕망도 이지러졌다.

어떤 경계”를 풀어버리게 하는 일이며(169), 경계를 “잃어버리게”(187, 209) 하는 일이다. 상여에 속곳을 덮는 행위의 상징성은 비현실적인 성의 교섭이며 두 영혼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¹⁷⁾ 영혼 결혼에 대한 사머니즘적 사고는 영혼의 인격화이며 여기에 성리학적 정절의 의미가 덧씌워진 진이는 미망인으로서의 상징적 죽음을 맞는다. 진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잃매고 있던 영과 육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양반과 상인의 경계가 무너뜨리는 인식의 계기로 삼는다.

진이는 양반이자 천민이며 천민이자 양반으로 이 경계는 곧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진이가 머무는 공간이다. 수근을 대하는 진이의 태도에서 미천한 쌍것으로 여전히 자신의 정주공간을 양반의 반열에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반으로부터 배제된다. 진이의 기생되는 이유는 “천하고 귀한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자유를 찾는 데에 더 큰 이유를 두고 있다. 그것이 경계인으로서의 진이의 자유의 공간이다. 진이는 이미 하늘 아래 한 남자의 아내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못 남성을 전생의 업으로 삼고 산천을 유주하며 자신을 불사르려 한다.

4. 교유(交遊) 모티프

출생담, 상사병으로 인한 혼사장애는 결국 기생되기의 연쇄체에 귀속되는 하위 모티프들이라면 교유 모티프의 연쇄체는 기생이 된 기생 진이의 현실이자 일상적인 삶이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일상의 여속(女俗)이나 여성의 금기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권력에 예속된 신분임을 보여준다. 진이는 남성들과의 성희나 교유 이면에 양반 사대부들의 권력과 그 권력을 배경으로 한 삶에 더 깊이 억압받

17) 설화의 ‘적삼’이 ‘치마’, ‘속곳’으로 변이되면서 영적인 교섭에서 육체적 교섭으로의 의미가 강해지고 대중적인 흥미도 커진다.

고 있다.¹⁸⁾ 이것이 남성, 사대부 양반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의 사회적 권력의 실천이다. 권력자들은 성을 정치적 도구로 또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생 진이의 삶을 수놓게 하는 명사들은 송도 유수, 서경덕, 지족선사, 이언방, 이사종, 소세양, 이생, 벽계수, 엄수 그리고 각종 연회에서 교류하게 되는 사대부들이 있다.¹⁹⁾ 둘째는 사적인 진이의 삶의 공간에 진이를 중심으로 하여 존재하는 하인 노비들이며²⁰⁾, 기생들이다. 교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일상적 교류와 계약 동거 그리고 금강산 유람 등을 통하여 진이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태준 <황진이>의 교류 모티프 : 진이와 교류하는 명사들은 김판서와 그 아들 김지학, 소세양, 벽계수, 이언방, 이사종, 지족선사, 서화담 등이다. 악공 엄수는 교류 대상으로서의 만남보다 진이의 기예를 가르치기 위하여 잠깐 동안 등장한다. 유수 송화영이 벌이는 연회, 김참판의 시회(詩會) 등 집단적인 놀이마당에서의 기생으로서의 진이의 일상이 있다. 진이는 김판서가 그의 아들 김지학과 혼사를 파기한 사실을 알고 그 아들 지학을 유혹하여 희롱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를 향한 복수와 남성을 지배하는 성적 유희를 과시한다. 작가는 김지학을 통한 복수와 성적 쾌락으로 기생 진이의 분열적 자아를 확연히 드러낸다.

지족선사와 화담은 다른 명사들과 달리 일시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선다. 진이에게 이들은 추앙하여 깨우침을 받고, 도학(道學)을 배우고,

18) 박종성, 같은 책 90쪽. 박종성은 기생의 자유로움에 대하여 “그들은 독립적 사회 단위이자 문화적 자율성을 누리는 직업집단이었고 홀로 설 수 있음에도 동시에 강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이중의 피지배 대상이”라고 한다.

19) 장시광의 자료 「청야담수」(같은 글, 309-400)에서 율곡 이이, 송강 정철, 서애 유성룡과의 교류를 볼 수 있다.

20)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77. 383쪽. 조선시대는 중인-양민-노비-천민으로 이어지는 종단의 계급구조를 이루고 있다.(김종성, 같은 책, 99쪽) 흔히 ‘종’이라 부르는 말은 노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문적 교유를 선망해마지 않는 인격체로서의 대상이다. 그러나 화담의 경우, 구전되는 도학자로서의 절대적 모습과는 달리 그 숭앙의 정도가 약화되어 있다. 설화에서와는 달리 진이는 화담에게서 오히려 물 흐르듯 하는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속을 느끼는 반면, 과거승으로 구전되는 지족과의 관계는 대봉이자, 여래상이자, 안겨보고 싶은 남정네로서 불심이 가득해 있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궁극적으로 진이가 추구하는 세계는 “도(道)에 애달음이 아니었고 정(情)에 애달음”이기 때문이다.

이사종과의 동거, 금강산 주유는 진이의 일탈 행위의 한 획이 될 수도 있으나 축소, 요약되어 그것이 주는 해방의 의미가 배제된다. 동거가 끝난 이사종과의 헤어짐에서도 진이가 슬퍼하는 것은 ‘청춘과의 헤어짐’이다. 금강산 주유(周遊)도 ‘떠남’이라는 소설의 종결적 의미에 더 치중되어 있다.²¹⁾

한편 진이의 사적 삶의 공간에서 반상의 문제가 약화된 만큼 개인적 삶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혼인을 위한 매과의 등장이나 보조적 인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비나 하인 등 주변인물이 제한됨으로서 소설을 살찌우는 구체성이 없고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한 존재로서의 초월적 자유로움과 탈속의 경지보다는 ‘기생으로서의 자유로운 정(情)’의 추구하는 낭만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홍석중 <황진이>의 교유 모티프 : 제2편 ‘송도삼절’은 기생이 된 진이의 일상인 교유의 이야기이다. 진이가 교유하는 인물들과의 이면에는 사대부들의 거짓과 위선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진이는

21) 이태준은 장편소설을 전작소설과 연재소설로 나누어 설명한다.([『무서록』, 50쪽) 1936년 <황진이> 연재를 중단하고 2년 지난 뒤 완결된 『황진이』를 동광당에서 발행한다. 이러한 과정에 급박하게 마무리 지어진 결말부의 축소, 후일담 형식, 확대 축소 등의 서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재와 이를 추가 보완한 것의 불완전성이 있으리라 생각 든다.

100여명의 사내를 접했으나 이를 구체적인 교유는 사랑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양반 사대부, 부정적 신앙으로서의 불도(佛徒) 그리고 사랑과 반상의 권력의 틈바구니에 있는 놈이다.

기생이 된 이후 진이와의 첫 교유자인 선비는 ‘황진이’의 시조와 더불어 인구에 회자되는 벽계수 충남이다. 진이와 충남과의 만남은 성적 쾌락보다 진이로 하여금 양반 사대부의 허위와 위선을 벗기고 이들을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의지가 표상된 것이다. 중세 양반 사대부 군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는 여성을 터부시하는 윤리관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억압된 선비 벽계수의 성적 욕망은 진이와의 정분을 위하여 몰래 담장을 뛰어넘고, 끝내 자기기만과 위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모멸과 환멸”로 빠져들게 되는 위선적 도덕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송도 유수 김희열은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진이와 오랜 동안 교유를 계속하면서 유수로서의 정치적 권력과 성적 지배의 힘을 과시한다. 유수는 진이에 대한 욕망을 늦추어가며 군자로서의 자존심으로 진이와의 긴장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권력을 쥔 시혜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그 하위자를 이용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기생 진이가 유수와 더불어 가지는 관계는 권력 관계의 틈서리에서 기생 아닌 기생으로서의 자신을 지켜 나가려는 예측된 기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를 보여준다.²²⁾

새로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신생 사대부들의 송유억불책은 불교로 하여금 유교에 그 자리를 내주고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소설의 처음부터 불단(佛壇)이 부정적 수사(修辭)로 기술된다. 향간에 파계승으로 구전되는 지족선사는 진이를 얼핏 만났던 중이

22) “도덕과 정의를 유난히 강조하면서도 허구와 패도의 장본인으로 전락하는 데 별다른 제동장치를 의식,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 사대부들에게 기생은 위무와 향락의 보조자였을 뿐 공경과 배려의 대상일 수는 없었다.”(박종성, 같은 책, 90 쪽)

상사(相思)로 인하여 생불이 되려는 만석으로 격하되어 있으며, 원목대사는 이를 이용, 흑세무민하여 세전을 끌어 모으기에 혈안이 된다. 진이는 원목대사를 유혹하여 알몸으로 궤짝에 가두고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고 불가(佛家)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진이는 그 교유에 있어 양반 사대부나, 불도들을 향하여 비판적인 시선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진이에게는 송도삼절이라 부른 화담 서경덕과 같이 흠모해마지 않는 인물도 있다. 유가의 도와 예를 갖추고, 또한 의로서 불의를 이기며, 자신을 이겨 자기의 격을 지키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위에 세속의 욕망에 도전하는 용감한 인간으로 숭앙해마지 않는 이가 화담이다. 진이의 불도들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성적 욕망의 자기 유희라기보다 유교의 성리학이 시대의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양반에 대한 비판을 통렬하게 하지만, 진이 자신의 행위는 양반과 상민의 경계에 선 이중 공간의 정체성을 갖는다.²³⁾ 기예가 뛰어난 명월의 이름으로 공간화한 대청마루와 지옥의 악귀로서 못 사내를 희롱하는 방이 기생으로서의 영역이라면(225), 묵과 서책이 있는 검소한 방은 참 진이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기생 신분이면서 기생이 아니고자 하는 자신의 존재 공간인 것이다.

진이의 교유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인식은 놈이에 대한 새롭게 변화된 사랑이다. 진이는 자신이 놓인 마음자리는 양반 사회의 현실에서 사랑을 계급, 권력으로 인정해왔으므로 놈이와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진이의 자기 반성적 인식은 진정성으로서의 사랑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²⁴⁾ 이러한 사

23) 진이의 위상은 시간, 공간, 계층간에서 그 경계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경계인, 중도인 등으로 말해지고 있다.

24) 진이는 놈이에 희생적 사랑으로 인하여 신분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한다. “그때, 내가 놈이를 사랑하는가봐.’ 진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자신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소스라쳤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음 속의 목소리가 바로 놈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는 첫 자각이요 첫 고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세계에 대한 진이의 새로운 인식이다. “그를 사

실로 말미암아 진이는 놈이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신분과 유수 김희열의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배반과 굴욕의 비참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 형장에서 사라질 놈이를 마지막으로 하고는 괴퐁이 이금이의 전승을 받으며 진이는 회한의 정을 품은 채 송도를 떠난다.

이사종과 함께 하는 금강산 유람이며 느닷없이 참예(參詣)한 잔치자리 이야기는 소문, 후일담으로 간접화됨으로써 일탈 자체의 유유자적(悠悠自適)이 진이가 구하는 삶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²⁵⁾ 이사종, 소세양과의 교유의 약화, 계약동거의 배제, 금강산 유람의 간접화 등의 교유는 배제되거나 약화되고, 반면에 양반 사대부들과의 교유에서 빈번하게 보여주는 허위와 거짓의 비판에 그 무게의 중심이 가 있다.²⁶⁾

황진사 고명딸의 자리를 박차고 기생이 되었어도 진이는 양반의 의식을 벗어버리지는 못한다. 따라서 진이의 계층 인식은 복합적이며 그 경계인으로서의 행위는 심리적 서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²⁷⁾ 내밀한 심층의 ‘꿈’처럼 서술된 제8장의 편지는 혼약이 깨졌던 윤도령을 향한 독백을 넘어서, 양반 사대부들을 향한 허위와 위선의 회화화이지만, 황진이의 향거가 자신의 내부로 향한 독백이자 궁극적으로는 자기연민의 징

랑하는 한 과거와 현재를 다시 넘어서지 못할 전생과 금생으로 갈라놓은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460)진이가 지향하는 이상은 진이를 위한 놈이의 일념이 드러나 있는 개인적 주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진이는 자신 사랑의 이상을 이금이와 괴퐁이의 사랑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지만 현실을 초극한 것은 아니다.

- 25) 홍석준 <황진이>의 시대배경은 제1편이 1534년(중종 29년), 제2편이 1539-40년(중종 34, 35년), 제3편이 1546년(명종 2년)이다. 후일담은 9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이다.
- 26) 홍석중의 <황진이>에 사대부와의 동등하거나 남성지배의 ‘금강산 유람’은 대폭 생략되어 후일담(“그 후의 이야기”)으로 언급될 뿐이다.
- 27)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 김재용 편,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2006, 130쪽. 최원식은 서정성을 지닌 8곳의 독백을 지적한다(제1편 5장 부분-독백, 15장-독백, 21장-편지, 24장-독백이고, 제2편 8장-독백, 12장-편지, 21장-일기 그리고 제3편 6장-독백). 환상적 독백과 편지글 양식은 고뇌에 찬 진이의 정신세계의 반영으로 서정적 우수를 나타내 보인다.

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전경린 <황진이>의 교유 모티프 : 모두 6개로 된 전경린의 『황진이』에서 1권의 3장과 2권의 4, 5, 6장이 기생 진이의 교유를 다룬다. 전경린은 예인(藝人)으로서의 진이의 정체성 못지않게 성을 사교파는 기녀로서의 진이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진이가 남기고 있는 빼어난 시문, 소리, 연주를 통한 예인 진이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기생 진이가 가지는 성적 역할의 현실성 정립 때문이다.

황진이 삶의 이야기에 용해된 시문들도 진이가 놓인 고적(孤寂)한 상황이나 남성들과의 교유에서 모색되는 아름다움일 수 있다. 또한 진이는 당대 기악의 명인 엄수에게 거문고를 배우는가 하면, 송도 관아 교방에서 기생 수업을 받는 일들이 기생으로서의 현실성 정립이다. 게다가 퇴기 옥섬으로부터 화장이며, 옷 입기, 치장을 비롯하여 특히 방중술(房中術)을 배우는 일이 그렇다. 예(禮)의 세계만이 아니라 진이가 처한 기생으로서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냄으로써 설화의 황진이 가 가진 신비성의 일면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꿔놓는다.

진이는 자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천하고 귀함의 세상 이치’ 곧 세상의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소세양과의 교유에서처럼 사대부들 사이에서 정분 가지기의 내기감이 되기도 한다. 송도의 주장 한유수는 기생으로서의 진이의 첫 정인이 된다. 진이를 거친 송유수, 종실인 소세양 등 권력의 중심축인 서울 사람들로부터의 힘이 진이에게 후광이 되어 지방 관아의 권력자들로부터 진이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해주는 힘의 역학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²⁹⁾ 이는 진이가 가진 미의 정치성이자 유혹적 성의 또 다른 힘이기도 하다.³⁰⁾

28) 제2편 8장, 서한체의 독백이 끝나고 9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진이는 목이 말라서 안타깝게 우물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깬다.”(230쪽)

29) 양반 사대부들은 기녀들을 독점하거나 공유하는 가운데 소유에 대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

30) 기생의 신분인 진이는 기예와 성적 욕망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을 유혹하여 자신

이사종과는 에로스적 사랑과 계약동거 등 동병상린의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이사종은 진이가 기생이 된 이후 스스로가 “발칙하게” 여 기면서도 탐하고 싶어 한 남성이다. 진이는 이사종과의 성희(性戲)에서 기생으로서의 일면을 보여주면서도 기생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성적 탐닉에 빠지기도 한다. 진이는 비록 자신이 거부했던 결혼, 터부시 해왔던 첩실자리라 하더라도 이사종과의 사랑을 위해서 계약동거를 한다. 계약동거에서 보인 진이의 가정생활은 부부의 연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정처(正妻)와 그 가족에 대한 신뢰를 다하는 것으로 표명된다. 이사종과의 이상적(理想的)인 가정생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근처에 대사회적인 저항적 이념의 실천에 역행하는 유가적 부덕(婦德)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런가 하면, 이사종이 풍기 군수가 된 뒤 진이는 이사종을 통하여 민본주의 정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여성에게는 금기된 남성의 실현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결혼은 전경린의 <황진이>에서 필수적인 선택 모티프로서 에로스의 자유로움을 최대한으로 확장 소설로 읽을 수 있게 한다.³²⁾

진이의 대사회적인 교유가 사대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진이의 복잡하고 혼란스런 삶의 뿌리는 그 가족과 가족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또 이 후자는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제도나 불교의 관념

에게 전전공공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 공격하는 복수의 심리적 만족을 꾀한다.

- 31) 박종성, 같은 책, 373쪽. 조선 기생들의 보편적 이미지는 “저항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용과 인고의 내적 단련을 통해 도리어 천역의 본분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진이의 계약동거는 그 자체가 일탈적 행위이면서도 진이가 행하는 행동은 사대부 가정생활 기본 윤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가적 부덕이 가진 당대의 보편성을 심층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김종욱, 「자기에게 돌아오는 머나먼 모험」, 『천사는 여기 머문다』, 이상문학상 작품집31, 문학사상사, 2007. 340쪽. 기생이 됨은 새로운 구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표리부동의 관계가 있다. 상사병이 죽음을 몰고 온 계층간의 성적 금기나 사대부와의 교유는 진이가 얼마나 몸의 자유로움을 구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적 세계가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홍석중의 진이에게 ‘놈이’가 있다면 전경린의 진이에게는 하인 ‘수근’이 있다. 진이는 소설의 처음부터 기생이 되기까지 진이의 배후에 존재 하던 수근을 결말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진이는 유기공(鑄器工) 수근을 줄곧 미천하게 여겨왔으나 수근은 진이의 어머니를 보살피는가 하면 전 재산을 팔아 진이가 살아갈 청루를 마련하고 그리고는 진이의 옆을 떠났던 것이다. 진이를 향한 수근이의 행위는 늘 진이의 마음에는 그가 준 늦쇠신처럼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그림자처럼 어두운 불안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진이는 귀법사의 병어리 묵암 스님으로 돌아와 스스로 천 여일을 두고 순교를 기다리는 수근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근의 불성은 수근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진이와 수근과의 사랑은 진이가 벗어나고 싶은 세계의 수근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진이가 수근을 구하기 위하여 지족선사를 만날 때, 지족은 “진이의 손등만 스쳐도 뒤로 넘어져 계를 깨고 말 허약한 소승”(256)임을 확인한다. 진이는 자신의 삶을 불교에 의지하고 진관과 같은 은혜로운 선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이 자신도 그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흑세무민하는 불교도의 왜곡된 탐욕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비하여 진이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화담에게서 도를 구하며 이상적인 정신적 세계로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류객 이생과 떠난 금강산 유람은 유람을 떠난 지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화담과의 만남에서 유람은 후일담으로 떠올려진다. 금강산 유람은 진이의 세계를 나타낼 일탈적 행위의 실현의 장이 되지만 진이가 누리는 ‘자유 함’보다는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탈 공간을 꿈꾸는 경계³³⁾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진이에게 금강산 유람은 길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거듭

33) 우미영, 「복수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최근의 『황진이』 소설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92쪽.

나게 하는 그 길의 힘은 다만 진이의 의지의 방향을 가리킬 뿐이다.

5. 죽음과 후일담

설화 황진이에서 죽음이나 사후 치제(致祭) 모티프들은 삶의 영역 밖의 일로써, 일대기적 생애담의 끝이면서 동시에 소설의 결말을 구축한다.³⁴⁾ 다시 말해 서사구조로 보아 화자가 주관하는 종결액자로서 이야기의 신빙성이나 황진이의 명성을 더 높이는 기능을 한다.

황진이 일대기를 그 구성원리로 할 때³⁵⁾ 후일담은 일차적 이야기의 밖에 놓이며 그 존재의 흔적이나 추상화된 내용이 회고의 관점에서 편집 서술된다.

근대 이후 소설 미학은 죽음이나 치제 등 사후성이 약화되거나 배제되고 독자의 상상력에 기대어 여운을 두고 있다. 이태준 『황진이』는 종결에서 죽음이나 존재에 대한 후일담이 없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이 사중과의 동거가 끝난 시점에서 6년 전 미련을 두고 떠났던 지족을 다시 만나고 화담의 묘소를 찾는 일을 끝으로 금강산 길을 오른다. 설화에 의하면 선비 이생과 금강산 유람을 계속하며 느닷없이 놀이마당에 나타나 남루(襤褸)와 창(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한운야학(閑雲野

34) 「성옹식소록」을 비롯한 몇몇 문헌설화에서 황진이의 죽음 모티프, 곧 유언을 볼 수 있으며 「송양기구전」에서는 생애가 통합체계로서 ‘전’ 또는 전기로서의 대강 일개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어우야담」이나 「송도기이」에서는 입체의 치제(治祭) 모티프도 있다.

35) 여러 설화집에서 편린으로 존재하던 황진이 관련 모티프들이 ‘傳’의 형태에서 ‘소설’이라는 갈래에 이르면서 ‘황진이’가 그 형태를 온전한 인물로 변용된다. 『松陽耆舊傳』(1896)은 다른 설화와는 달리 ‘傳’ 항목에 출생과 기생입문, 선비와의 교류, 죽음까지 일대기적 생애가 다루어지고 있다. 모티프의 편린들을 하나의 전체로, 전기적 생애담의 결핍을 구축함으로 채우려는 작가의식의 지향성이 황진이를 장편화하고 인물의 일대기 형태를 취하게 할 것이다.

鶴)과 벗이 되어 구름 가듯, 학이 날듯, 널리 산천경개나 소일하리”라던 생각에 따라 유람을 나선다. 송도를 떠나는 일이나 이사종과의 이별에서 진이는 자신에게 남은 날이 남가일몽(南柯一夢), “역시 꿈같은 일생일뿐”이라는 데에 생각이 가 있음을 보여주어 물 남성과의 교유가 덧없음을 은연중에 보이며 자신의 삶이 기생으로서의 정분을 좇고 있었음을 말한다.

홍석중은 제3편의 마지막 장³⁶⁾에서 사건들은 빠르게 종결된다. 놀이가 처형되고, 모두(冒頭)에서 혼사 과약이 있었던 윤도령이 역모죄로 투옥된다. 또 우찬성으로 승진한 한유수의 전별과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같은 시간에 송도를 떠나는 진이의 행보가 깊은 여운을 가지게 한다. 진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객사(客死) 소식이 들이면[入] 시신을 수습해 자신에게 “넋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마음껏 설치를 할 수 있게”, “따로 봉분을 만들지 말구 길가에 아무렇게나 묻어라.”고 이금이 부부에게 그 사후를 당부한다. 진이는 그의 무덤을 찾아들 상사의 남성을 생각한 것일까. 일생의 이야기가 끝나고 후일담(“그 후의 이야기”)에서 화자는 진이의 무덤을 찾아 치제(致祭)한 임제를 언급한다. 후일담은 액자소설의 이야기의 완결 기능을 하며 진이의 이야기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 한다. 후일담은 회고의 정념으로 채워져 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진이가 죽은 400여년이 지난 지금 화자는 임제가 지었다는 시조로 그의 죽음을 언급하며 조상(弔喪), 회고하는 태도는 일차적 이야기와 거리화가 필요하다.

정경린 『황진이』의 경우, 등신불로 열반한 수근과 지족암이 불타고 진이는 유람 후 화담과의 만남이 있고 이어 화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차적 이야기는 끝난다. 화담이 죽은 지 다시 3년, 불탄 수근의 등신불을 모신 지족암 법회 틈서리에 진이가 나타났다가는 훌쩍 사라진다. 진이가

36) 제3편의 마지막 20장에 이은 XX로 표시된 부분(“그 후의 이야기”)은 시공을 달리한 후일담을 표시한 한 장이 될 수 있다.

구가한 자유로운 성을 이야기함인가, 진이가 사라진 뒤로 푸른 청대를 닳아 다리가 긴 사나이가 뒤따른다. 다리가 긴 사내의 행보는 진이가 구가한 성의 해방과 자유분방한 삶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소설은 유람으로 끝난다. 진이의 유람은 화담에게 말한 “길이 그 자신의 몸”인 그대로의 여생을 내어 놓으면서 그것을 사는 것이다

6. 마무리

모티프의 편린으로 존재하던 설화의 ‘황진이’가 근대 이후 소설에서 온전한 일대기로서의 인물로 등장한다. 기생 황진이가 조선적인 것으로서의 복고가 1930년대 문학사의 한 징후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가진 식민지 문화전략과 혼합된 이중성을 가지고 생성되었듯이, 정경린, 홍석중의 황진이 역시 현대 문학사에서 소비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담론과 남북의 정치적 기류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성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태준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원인을 일차적으로 상사병으로 인한 총각의 죽음에 두고 있음은 민속신앙과 정절을 윤리적 가치의 덕목으로 접합한 유교문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홍석중이나 정경린의 『황진이』는 다 같이 출생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천기로 전략하는 진이를 그리고 있다. 홍석중은 은폐한 출생을 비밀한 시학적 구조로 강조하면서 흥미를 더했으며 정경린은 진이의 일대기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부가함으로써 기생됨의 원인을 출생 신분에 비증을 두었다. 이 두 작가의 『황진이』는 반상의 신분을 중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의 심층에 있는 조선조 양반 사대부들의 성과 권력의 지배를 비판하는 것에 진이의 기생되는 소이를 두었다. 홍석중이 반복하여 양반 사대부들의 거짓과 위선의 비판에 일관하고 있다면, 정경린은 성 권력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자유

롭고자 하는 성의 자유문제에 더 가까이 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남성의 지배와 반상의 정치권력의 지배에서 개인의 자유로움을 구가하는 진이의 지향세계는 완전히 유교적인 가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이는 양반과 천민, 규범과 일탈, 과거와 현재 그 경계에서 늘 자유롭고자 한다. 전경린의 계약 동거 모티프에서 진이가 사는 삶의 방식은 유교적 부덕(婦德)의 세계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아니 한다. 일차적 이야기가 끝나고, 후일담으로서의 황진이가 비록 절대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이에게 활개치며 날아오를 금강산 유람이 사후적인 일로 기술되고 있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놈이와의 사랑이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은 놈이가 없는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연구발표회에서 토론을 해준 최인자, 최현주 교수의 논의가 논문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고문헌

- 이태준, 『황진이』, 서음출판사, 1988.
- 이태준, 「조선의 소설들」, 『무서록』, 깊은 샘, 1994.
- 홍석중, 『황진이』, 문학예술출판사, 2002.
-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 김치수, 「이태준 평전」, 『이태준』, 지학사, 1990.
- 이명희, 「〈황진이〉·〈왕자호동〉의 역사소설적 의미」, 『이태준 문학연구』, 1994. 390-405.
-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어문학』, 60집, 1997. 435-467.
-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집, 1997. 387-417.
-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77.
- 이미선,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9
- 이숙인, 「정음'과 '덕색'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호, 2001 여름호. 5-32.
-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 박중성, 『백정과 기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최진이, 「북한문학 작품과 작품에 대한 이해」, 『민족문화론총』 29집, 2004. 37-67.
-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집, 2005. 165-191.
- 우미영, 「복수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최근의 『〈황진이〉 소설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81-209
- 윤분희, 「황진이 이야기의 의미 생성과 변모」, 『우리말글』 34호. 2005. 151-182.
- 임규찬, 역사소설의 최근 양상에 관한 한 고찰-‘황진이’의 소설 형상화를

-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1권, 2005. 57-82
- 차혜영, 「사실, 주체, 섹슈얼리티-‘황진이’류의 소설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제14호. 2005. 145-166.
- 황국명, 남북한 역사소설의 거리-‘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2집, 2005. 5-48.
- 김경연, 「황진이의 서사적 변형과 생산에 관한 고찰」, 『동남어문논집』, 21집, 푸른역사 2006. 5-26.
- 정혜영, 『환영의 근대문학』, 소명출판사, 2006.
-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 김재용 편,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2006. 109-131
- 김종욱, 「자기에게 돌아오는 머나먼 모험」, 『천사는 여기 머문다』, 이상문학상 작품집31, 문학사상사, 2007. 332-342
- 고인환, 「<홍석중>의 황진이 연구-주인공의 현실인식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8집, 2008.4. 311-342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08.

<Abstract>

A study on Novel <Hwang Jin-Yi>

- Based on the Lee Tae-Jun, Hong Seok-Jung, Jeun Kyung-Ryn' <Hwang Jin-Yi> -

Myung, Hyung-Dae

This paper examines the descriptions of the life of Hwang Jin-Yi by three writers, Lee Tae-Jun, Hong Seok-Jung, and Jeung Kyung-Ryn. In the analysis of Lee, Hwang Jin-Yi's decision to be a gisaeng was rooted in a young man's death out of lovesickness for her. Hong and Jeung describe Hwang Jin-Yi as being driven to a gisaeng because of her birth in the low class. Hong puts her mysterious birth in an esthetical construct, and Jeung adds Jin-Yi's mother in the story to emphasize her birth in the low class. The two writers attribute people's wrong behaviors to the domination of sex and power by Chosun Dynasty's yangban (aristocratic class). Hong devotes to criticizing yangban for their pretension and hypocrisy, while Jeung focuses on the pursuits of being free from the control of sex by the power. Jin-Yi, however, is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Confucianism. Although she wants to be free, she always hangs around the boundaries between yangban and cheomin (low class), between discipline and breakaway, between past and present.

Key Words : Lee Tae-Jun, Hong Seok-Jung, Jeun Kyung-Ryn, Hwang Jin-Yi, Gi-Saeng, social intercourse, reminiscences